

<지난주 말씀>

▶중보라는 의미는 연결시킨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는 잘 안쓰입니다. 사람이 중보의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의 역할은 오직 그리스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보라는 단어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 강단의 가장 키가 그 주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제목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강단의 흐름을 우리가 한주간 붙잡고 인도받길 바랍니다.

▶그 중보의 내용이 뭐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는 중보자의 비밀이 예수입니다. 오늘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 언약은 흠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둘째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첫 언약이 흠이 없다면 둘째 언약이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귀 자녀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이 인생을 첫 언약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언약을 통해 절대 가능한 비밀을 주셨습니다. 창3:15 여자의 후손, 창6:14 방주의 비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으면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와서 그 방주의 비밀을 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모세는 그 상자에 계속 있으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 갈대상자에서 나와서 말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이 된 인생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절대가능한 비밀입니다. 사7:14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마16:16 절대가능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둘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요19:30에 인간의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선지자,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참 왕의 비밀로 둘째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번주 말씀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지난주 말씀보다 더 깊

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첫 언약은 율법입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중보자, 멸망에서 구원으로 가는 중보자,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특히 이 히브리서는 예수에 관해서,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비밀에 대해서, 예수가 어느 정도 깊이로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본론>

1.첫째 언약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히9:1)

첫 언약, 율법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예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컬고(히9:2)

첫 언약에 율법으로 만들어진 성소가 첫 장막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컬나니(히9:3)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하나님은 법대로 정하셨습니다. 이게 첫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첫 언약을 통해서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메시야가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형과 그림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이 첫 언약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절대불가능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향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히9:4)

이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돌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만나를 담은 향아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날날이 말할 수 없노라(히9:5)

언약궤도, 성소도, 지성소도 전부 모형과 그림자를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은 오시기로 약속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히9:6)

이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온 게 아니란 것입니다. 이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 년에 한 번 들어가 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히9:7)

둘째 장막은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한 해에 한번 제비를 뽑아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선정해서 들어갈 때 자기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흠이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지성소에서 살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을 달아서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걸로 알고 끈을 당겨서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격하고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비밀 속에 둘째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도록 길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히9:8)

둘째 장막이 오기 전에 첫 장막만 있을 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인 율법은 둘째 언약인 그리스도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 비유의 실체가 오신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히9:9)

이 비유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히9:10)

이 율법은 육체를 정결케 하는 예법일 뿐이지 영혼을 정결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데 그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첫 언약이고, 그것이 율법이고 예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예법과 율법에 따라 흠이 없이 산다고 해도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행실이 기준되어서는 안됩니다. 일평생 남을 위해 봉사한 테레사 수녀를 보십시오. 그러나 첫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 첫 언약으로는 온전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지도자가 왜 저럴

까, 따지지 마세요. 우리의 기준은 둘째 언약입니다.

2. 둘째 언약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히9:11)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아무 인간의 족보가 없는, 하나님의 계보를 따라 온 것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대 대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창조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사람이 만든 장막이 아니라

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히9:12)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는 염소나 송아지나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분은 자기 피로 인간을 구원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인간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늘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며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라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히9:13-14)

완전한 피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로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너희가 하면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찌하여 정결케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히9:15)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구원을 통해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히9:18)

첫 언약도 피로 세운 것입니다. 이 피는 짐승의 피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9:19-22)

둘째 언약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첫 언약을 통해서 피를 뿌림으로 해서 정결케 하고 깨끗케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첫 언약이고 율법입니다. 피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뿌려야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3. 둘째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

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히9:24)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그리스도는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

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보좌로 올라가셨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히9:25)

대제사장은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지만 그리스도는 한 번에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 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히9:26)

그리스도가 해마다 십자가를 쳐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의 피로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모형과 그림자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형과 그림자가 예표한 실재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9:27)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천국이나 지옥이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히9:28)

그래서 그리스도도 멸망받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도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반드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분을 통해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인생이 영원한 천국이나, 지옥이나로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언약을 붙잡으면 지옥이고, 둘째 언약을 붙잡으면 천국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를 붙잡지 말고 실재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

▶첫 언약에서 말하고 있는 성소, 장막, 지성소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 모형과 그림자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들을 위해서 예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 언약이 오시기 전까지만 필요했던 존재입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주이신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결론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한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굉장히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임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